

	<b>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</b>		
회 의 명	제41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원회		
일 시	2023. 4. 14.(금) 15:00	장 소	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
참석위원	김은상(의장), 한상만, 전재욱, 박동희, 조준범, 박근아, 전미희 평의원 / 서용원, 김윤배, 김중환, 허재강, 윤영선 평의원 위임장 제출 (이상 총 12명) ※ 기획조정처 유필진 처장, 전략기획팀 박형준 계장, 이새롬 직원, 재무팀 유동석 팀장 배석		
불참위원	-		

## 1. 개 회

- 김은상 의장이 총 12명의 평의원 중 7명이 참석하고 5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, 제41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다.  
 제41차 대학평의원회 안건이 심의사항 1건, 자문사항 1건임을 확인하고, 전차 회의록을 묵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전차 회의에서 언급된 단체협상 개최 여부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2023년 3월 단체협상이 완료되었다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,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다.

## 2.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- 김은상 의장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사항을 상정하고,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이새롬 직원이 제1차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‘대학원 학생정원 조정사항’에 대한 회의자료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2023년 2월 폐원하는 글로벌보험·연금대학원의 입학정원에 대해 질의하다.
- 이새롬 직원이 2021년 2학기부터 모집인원을 정지하여 입학정원을 0명으로 유지하였으며, 2023년 2월 전체 재적생이 졸업하여 폐원하였다고 답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해당 대학원의 입학정원이 어디로 조정되었는지 질의하다.
- 이새롬 직원이 당시 교무위원회 자료를 확인하여 차기 회의에서 답하기로 하다.
- 이새롬 직원이 제3차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‘대학원 학생정원 조정사항’에 대한 회의자료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교육부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, 2022년에 결손 인원 활용형으로 정원을 증원한 105명에 대해, 2023년에 결손인원 활용형으로 54명, 교원확보율 충족형으로 197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이며, 2023-2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금번 정원 증원을 통해 경쟁대학 수준의 일반대학원 정원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다.

- 전재욱 평의원이 교원확보율 충족형으로 정원이 증원된 첨단학과의 교원 채용과 소속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첨단학과 소속으로 전임·겸임·산학교원 등을 채용 할 계획이며, 2년 후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교육부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금번 정원 증원은 학부와 대학원을 아우르는 매트릭스형 학사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다.
- 이새롬 직원이 제3차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‘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’에 대한 회의자료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1년 4학기제와의 연관되어 있는지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1년 4학기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, 향후 1년 석사 과정에 대한 운영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부분이라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4.5년 학석사과정, 3년 석박사과정에 대한 제도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,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다.
- 이새롬 직원이 제3차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‘부속기관 신설 반영’에 대한 회의 자료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미래정책연구원의 개원 목적과 명칭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미래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정책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규용 회장님의 기부 재원을 바탕으로 신설되었으며, 법학,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원이 참여하고, 법학대학 성재호 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미래정책대학원과 연계하여 10명 정도의 미래정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다.
- 전미희 평의원이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다.
- 박동희 평의원이 향후 유사한 기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지 묻고,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평의원 전체의 동의 하에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을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 3. 2022년 결산(안)

- 김은상 의장이 2022년 결산(안)에 대한 자문사항을 상정하고,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유동석 재무팀장이 ‘자금계산서’에 대한 회의자료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교원·직원 보수가 예산 대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동석 재무팀장이 교원·직원 보수는 예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,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고 답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임상교원 인건비를 수입으로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동석 재무팀장이 임상교원 인건비는 협력병원에서 전액 부담하며,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학교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후, 동일 금액을 임상교원의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다.

- 한상만 평의원이 전입/기부수입 중 국고보조금 및 산학협력단전입금 수입 구성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동석 재무팀장이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가장학금, 대학혁신지원사업, 대학원혁신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고, 산학협력단전입금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연구 간접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연구학생경비가 예산 대비 과소하게 집행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동석 재무팀장이 코로나-19 영향과 더불어 연구비의 경우 여러 년도에 걸쳐 집행되기에 일부 이월되는 등의 사유로 예산 대비 적게 집행되었다고 하다.
- 유동석 재무팀장이 ‘대차대조표’에 대한 회의자료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대학의 현금 보유금액의 자금운용 방식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동석 재무팀장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등록금 수입 전액 및 적립기금 중 50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, 적립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위탁하여 투자운용하고 있다고 하다.
- 전미희 평의원이 전년대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동석 재무팀장이 대학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 없이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등을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표기된다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지 묻고,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평의원 전체의 동의 하에 2022년 결산(안) 자문을 종결하다.

#### 4. 기타사항

- 김은상 의장, 전미희 평의원이 대학 캠퍼스의 확장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대학로 인근, 자연과학캠퍼스 식물원 등의 부지 개발과 더불어 교내 행사를 교외로 확장하여 대학을 브랜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공간 대관 신청 시 가부가 빠르게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길 요청하다.
- 박동희 평의원이 공간 대관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여 가부 확정이 지연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우수 학부생이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고, 과학기술원(IIST) 등의 경쟁대학 수준으로 장학금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학석, 학석박과정 등을 통해 대학원 진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 질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, 16:5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제4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. 끝.

서용원

<위임>

한상만

전재욱  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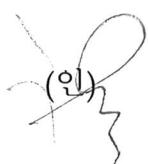

김윤배

<위임>

김은상



박동희



김중환

<위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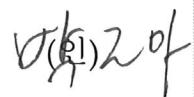
허재강

<위임>

조준범



박근아



전미희



윤영선

<위임>